

게리 예이츠 박사, 예레미야, 강의 2, 선지자들의 오해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저는 예레미야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게리 예이츠 박사입니다. 세션 2에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거나 연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선지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대변인 예레미야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에 관해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위기에 대비하여 기록하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그 언약의 저주를 근거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성약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행하실 축복과 일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몇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 자주 듣는 첫 번째 오해는 그들이 종종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바라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한 사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줄이 돋아난 채 설교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설교자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레미야를 통해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말하려는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한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가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심판과 그 심각성에 대한 극단적인 그림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에는 죽음이 유다 백성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창문을 통해 기어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애도와 슬픔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하나님의 불충실한 아내로 묘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세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26절과 27절에서 주님은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벗기고 그 수치를 모든 민족 앞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이미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0절은 여호와의 진노가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분노한 심판의 사자였는가? 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선지자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표현과 열정적인 표현 중 일부가 선지자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브렌트 샌디(Brent Sandy)는 그의 저서 Plowshares and Pruning Hooks에서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극단적인 진노가 우리에게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보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주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맹렬한 분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시며 이르시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분노를 완전히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신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팔에 안고 양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자로 묘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지 사람들을 멸하는 것뿐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디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사 백성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들의 길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꺼리실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설교할 때 그가 직면하게 될 유일한 것은 반항적인 반역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8장에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44장, 우리는 이교 의식을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표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포로 생활을 생각하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패하여 끌려가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신이라는 느낌조차도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니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의 주님도 나를 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여자가 어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자가 자신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 즉 아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 수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문신을 주셨고, 한편으로는 시온을 갖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도시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먼저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에 대해 알고 계시는 첫 번째 형상을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결코 그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 즉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전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을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선지자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래와 그들의 역할, 목표와 사명을 내다보는 수정구슬 관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모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 팬으로서 저는 선지자란 매 경기와 이러한 상황에서의 결과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66%의 시간 동안 옳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50%의 시간 동안 옳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95%의 시간 동안 옳지 않았습니니다. 신명기 18장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언을 하시면 그가 100% 옳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한 것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선지자의 주요 메시지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의 설교의 3분의 2가 예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 중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선지자 메시지의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교회에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당시의 필요, 관심사, 문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알아가면서, 그들이 우리 삶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문제,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설교 중 3분의 2는 그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필요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의 3분의 1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예언의 대부분은 예레미야가 예수 시대보다 500년 이상 앞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예측과 사건의 대부분은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 많은 부분은 우리가 신약성경과 예수님의 시대에 도달하기 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Fee와 Stewart는 그들의 책인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에서 이러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예언 중 메시아 예언은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 중 5% 미만이 새 언약 시대를 다루고 있으며, 1% 미만의 예언이 아직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에 접근하거나 단순히 종말론의 관점에서 선지자에 대해 생각하거나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 책들을 읽고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찾고 싶어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야가 통치하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말론적 수수께끼와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답을 찾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간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사역의 주요 초점이 아닌 것들을 찾기 위해 선지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주요 쟁점은 당신이 전천년왕인지, 무천년왕인지, 후천년왕인지, 환궁전, 환궁중, 환난후인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공부하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주요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에게 자주 말할 때면 종종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9-11 사건 이후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까? 9-11이 성경에 예언되었나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성경에 그것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특히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오늘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찾으려 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당신은 사람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이런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류는 성경에 없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실수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큰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며 시온이 산들 가운데 높이 들리워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구체적인 사항 중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서구와 급진 이슬람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지자들은 항상 그러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들의 예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뽑아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 일부 대중 연구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이것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게서 그런 종류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 둘 중 하나에 실망하게 될 것이고, 둘 중 하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고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중적인 기독교 문화에서 선지자들을 대하는 많은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오늘 우리 수업의 초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보다 수백 년 앞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하고 있던 현실이 이미 일어난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관련될 수 있습니까? 글썄요,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선지자들은 종말론과 우리의 종말론적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에 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5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화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때, 저는 그가 모든 차이점과 시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과 매우 유사한

문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밭에 밭을 더하고 부와 소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쾌락에 사로잡혀 포도주를 한 그릇 가득 마시고, 오직 술과 쾌락 만족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는 도덕적 혼란에 사로잡혀 선을 악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쇼나 라디오 콜인 쇼를 볼 때 사람들이 낙태나 동성애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가 성경을 버릴 때 우리는 도덕적 중심을 잃게 되며,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하려면 서두르십시오. 서두르십시오. 속도를 높여 심판을 내리십시오. 예.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속히 올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때 그 일은 매우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루고 있던 문화는 - 네, 엄청난 시간차가 있습니다 - 우리의 문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나는 선지자들을 연구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예언서 전체의 관점에서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선지자들이 특별히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가나안의 신들, 바알, 다산의 여신에 대한 숭배, 그리고 모든 의식과 의례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특히 두드러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살았던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빗물과 물이 귀했기 때문에 저수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는 그 물을 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의지한 우상들을 터진 웅덩이에 비유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새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실제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미와 안전을 위해 신뢰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수를 찾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갈라진 웅덩이가 될 신들을 숭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안전과 중요성과 축복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성읍 수만큼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우상들 중 어느 것도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면에서 유다 백성의 급진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악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나라, 예레미야 2:11이 그 신들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을 버렸습니다. 신부는 약혼반지와 결혼식 장신구를 잊어버리나요? 아니, 하지만 내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중요한 장 중 하나인 예레미야서 2장의 바로 앞부분에서 주님은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깊이와 그것이 가져온 타락, 그리고 그 일부인 이교 의식이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36절에 언급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물건을 두어 그것을 더럽혔느니라. 그들은 이런 우상들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형상들을 성전에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힌놈 골짜기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관련된 이 이교 신들에게 신성한 장소를 세웠고, 이 신들의 숭배와 관련된 의식에는 실제로 어린이 희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역사서에서 아하스와 므낫세와 같이 실제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자인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그들의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우상숭배를 더욱 비꼬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장 5절에서 우상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백성이 섬기는 우상은 오이밭의 허수아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할 수 없고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안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오이밭의 허수아비에게 절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의 우상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사실,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는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한 마지막 메시지, 예레미야서 44장에서 그의 마지막 공개 설교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있으며, 이집트에 있는 난민들의 이교 관습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치워야 하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많은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종종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와 악수를 한 후 떠날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에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다산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행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에게 전제를 부어 드리리라.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처벌하시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추방의 심판을 보냈으나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끝부분에서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과 이 신들의 실재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너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는 요시야가 우리 신들과 이교 관습을 없애는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나쁜 일들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예레미야서와 선지자서 전반에서 주요 이슈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관련된 인생의 주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습니까? 아이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알려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사항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을 읽고 성경에는 내가 다뤄야 할 죄가 많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제가 목록에서 확인한 것 중 하나입니다.

나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실에 있는 50인치 TV 외에는 그렇게 자주 절하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들과 구약성경이 우상숭배에 대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써 다루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몇 가지 구절이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이나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인 아닌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숭배하는 주요 우상은 부와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7세기, 6세기에 예루살렘에는 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끊임없이 매력을 느낀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 문화가 바알을 폭풍의 신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를 내려 그들과 그들의 농작물을 축복하고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여신들은 그들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즉, 이 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부과하신 도덕적 요구 사항 없이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매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주의, 부, 소유물 등을 생각할 때 그것들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과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안전과 의미의 원천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에 사랑과 헌신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항변하면서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의 목록을 길게 나열합니다.

그는 금이나 그의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해와 달을 향해 입맞추거나 신들에게 절하는 이교 의식과 동일시합니다. 즉, 부와 소유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교도적인 일입니다.

구약성경은 또한 우리가 문화의 거짓말에 굴복할 때 우상 숭배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변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알과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였으며, 그 신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던 삶의 안전과 부, 축복, 기쁨, 행복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안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우상 숭배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종종 우리 문화의 대안적 이야기를 구매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즐거움, 부, 소유, 성공, 부, 경력, 그런 것.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 또 다른 구절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에 직면하러 왔을 때, 그는 단순히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건설하고 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그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이러한 형상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충성을 바칠 육체적인 이미지나 대체 종교 제도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 봉사를 빼앗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제기하는 생명의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불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얻을 만큼 절박해집니다. 결국 그것이 이웃을 헐뜯고, 학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우상숭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곧 긍휼의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하던 자를 돌아보사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남을 학대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아 세력을 확립한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할 때,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와 음욕으로 크게 기록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죄. 당신이 그러한 종류의 신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간 영역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언약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하신 사회의 종류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백성에게서 땅을 빼앗고 모든 것을 그들의 권력과 부에 복종시킴으로써 이 일에 기여했으며, 이 모든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8세기에 선지자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린 가장 큰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사회로 귀결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내가 이 법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줍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웃에게 돈을 꾸어 주었는데, 그 옷을 갚겠다고 담보로 주어야 한다면, 밤마다 그 옷을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밤에 자면서도 춥지 않게 말이죠. 신명기 15장 1절은 7년마다 땅에 있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오늘 그 연습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너희는 동포 이스라엘 자손에게 꾸어준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남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너는 7년마다 너의 종들, 곧 히브리 빛진 자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34장과 35장에 이르면 유다 백성이 그 계명에 따라 살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이용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8절,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라.

레위기 25장, 네 가난한 친척이 궁핍하거든 그를 빛에서 사거나 그가 팔아넘겼던 그의 재산을 갚아 주라. 레위기 25장은 또한 매 50년마다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희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윤리의 일부입니다.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는 자신의 저서 꼭 주먹(Tight Fist or Open Hands)에서 구약의 율법이 단지 고대 근동의 또 다른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 면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독특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구약의 문화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완전히 구별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윤리적 책임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함께 이 내용이 나오는 구절 중 일부를 강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절은 이미 수업 초반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밭에 밭을 엮어 자리가 없게 하여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게 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듣는 데서 맹세하셨느니라. 분명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이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될 것입니다.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는 한 바트밖에 나지 않고, 한 밭의 씨앗도 한 에바 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빛과 대출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남에게서 훔친 땅을 내가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모스 2장은 이 땅의 악인들이 신 한 켈레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종과 성적 부도덕을 범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서 빼앗은 겹옷을 입고 누워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훔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의 유명한 성전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그 땅에 살고 싶다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십계명을 받아 뒤집었습니다. 그는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명의 후반부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명의 전반부를 둘째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는 악인과 부자와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솥에 자르고 요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저녁으로 먹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식인 풍습을 행한 것이 아니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하여 가난한 자들을 강탈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생계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유산, 당신은 식인종만큼 나빠졌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척하며 제사를 드리며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와 미국 복음주의에서는 우리의 복음 사역에 사회 사역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사회복음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차적인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명을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복음 사역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다시 일깨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David Platt의 책 Radical은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면에서 교회가 이러한 책임을 등한히 한 이유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의 절대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복음 사역을 대신하지 않으며, 나쁜 신학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단순히 구약성경이거나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누가 신명기 15장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실패했던 백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성취한 것은 그 부분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있는데 실제로는 관련된 삶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루려고 하는 세 번째 쟁점은 거짓 예배의 문제, 거짓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벌이는 싸움의 대부분은 예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설교 스타일, 우리의 성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음악, 예배 스타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외부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은 예배의 구체적인 핵심을 더 많이 다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제사, 찬송,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단지 동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그 관습과 의례 뒤에는 생활 방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주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의식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는 그 예배에 부응하는 순종적인 삶의 방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대조적으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의식과 희생으로 조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종종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재앙이 일어나면 사원이나 성직자에게 가서 우리가 신들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신들에게 더 많은 고기나 맥주, 와인을 바친다면 그들은 우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은 의식과 희생으로 조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웃에게서 담보로 빼앗은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너희 손이 피 범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헛된 제사를 드리는 일과 내 뜰을 짓밟는 일을 그만 두라. 나는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본다.

미가서 6장은 선지자서의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에게 호화로운 희생과 기름의 강,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을 바쳐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내 대답은 아니오 야.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첫 아이를 데려와서 많은 이교 숭배자들처럼 최고의 희생을 치러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자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나는 너희 음악을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생을 싫어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식을 싫어합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절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비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예식이나 제사에 관한 명령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나으니 너희의 제물은 무익하니라. 선지자들은 의식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윤리적 유일신론의 초심자였으며 모든 의식을 거부했다는 이전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의식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정하셨으나 생활 방식과 동떨어진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강조되고, 우리의 안전이나 헌신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활 방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짓 예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나요? 당신의 전례는 어떤가요? 당신의 의식은 어떤가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질문은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든 우상에 대한 욕망과 사랑으로 인해 그분에 대한 헌신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마음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들을 살펴보고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Dr. Gary Yates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게리 예이츠 박사입니다. 세션 2에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